

코로나 충격 벗어나...광주·전남 산업시설 투자 늘었다

예금은행 산업별 신규 대출 3조1443억...전년비 32% 줄어들어 운전자금 1조6263억으로 49.9% 줄고 시설자금 1395억 증가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별 신규 대출금액이 전년보다 1조5000억원 가까이 감소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빚 내서 버티자'는 운전자금 대출은 전년보다 줄고 시설자금은 늘었다.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예금은행의 산업별 신규 대출금은 3조1443억원으로, 전년보다 32.0%(-1조4811억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산업별대출금은 총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공 및 비영리기업대출이 포함돼 기업대출금과는 다르다.

이한빈 한은 조사업역은 "대출금 증가규모가 전년에 비해 둔화됐지만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웃도는 등 증가세는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 2020년 신규 산업대출금은 4조6254억원으로, 확산 이전인 2017년 4737억원, 2018년 9504억원, 2019년 1조8045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신규 산업별대출금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대출은 지난 2020년 9556억원에서 이듬해 8312억원으로, 13.0%(-1244억원) 줄었다. 제조업 가운데 음식료품 사업체 대출이 1777억원에서 2322억원으로, 30.7%(545억원)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신규 대출이 감소했다.

음식·숙박업을 포함한 서비스업도 신규 대출이 2조9059억원에서 1조8208억원으로, 37.3%(-1조851억원) 줄었다.

특히 음식·숙박업 신규 대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020년 음식·숙박업 신규 대출은 3830억원으로, 전년의 4.5배 수준으로 뛰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년의 4분의 1 수준인 869억원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도·소매업 신규 대출도 8071억원에서 4046억원으로, 반토막(-49.9%) 났다.

건설업에 대한 대출은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 모두 소폭 둔화됐다.

지난해 건설업 대출금은 2056억원으로, 전년(2147억원)보다 4.2%(-91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 대출금은 2.3%(-28억원) 감소한 1188억원, 전문직별 공사업은 6.8%(-63억원) 줄어든 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산업별대출금은 운전자금 대출이 압도적으로 급증했던 전년과 대조됐다. 시설자금 대출 증가폭은 크게 늘었고, 반면 운전자금 대출은 큰 폭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산업별대출금 3억1444억원의 운전자금

1조6263억원(56.3%)과 시설자금 1조5181억원(43.7%)으로 구성됐다.

운전자금대출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운전자금 신규 대출 총액이 3조2468억원에서 1조6263억원으로, 49.9%(-1조6205억원) 감소했다.

반면 시설자금 대출은 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규 대출은 2020년 1조3786억원에서 1조5181억원으로, 10.1%(1395억원) 증가했다.

한은 측은 "운전자금 대출 증가율은 7.2%로, 시설자금대출 증가세 8.9%를 하회했다"며 "이로써 운전자금대출 비중은 56.7%에서 56.3%으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소비심리 위축에 농산물 값 하락세

양파 42.9%·오이 16.7%·애호박 28% 등 대부분 내리

날이 따뜻해지면서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늘었지만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 판매된 주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한 농산물 소식지 '얼마오 2205호'를 발행했다.

전년보다 가격이 크게 내린 채소는 오이와 호박 등이다.

취정오이 10개 가격은 1만원으로, 전년 같은 날(1만2000원)보다 16.7% 하락했다. 애호박 1개 가격은 2500원에서 1800원으로, 28% 내렸다. 상추 100g 가격은 22.2%(-200원) 하락한 700원으로 집계됐다.

풋고추 100g 가격은 35.7%(-500원) 하락한

900원, 견고추 600g은 41.1%(-7400원) 내린 1만 600원으로 조사됐다.

양파(1kg)는 2000원, 대파(1kg) 가격은 2500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무려 42.9%(-1500원), 58.3%(-3500원) 급락했다.

사과와 배는 최근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 중·소과 위주로 출하되면서 전년보다 가격이 내렸다.

사과(후지) 10개 가격은 3만3000원으로, 전년(3만7000원)보다 10.8% 하락했다. 배(신고) 10개는 3만8000원으로, 전년(5만원)보다 24.0% 떨어졌다.

쇠고기(한우등심 1등급) 100g은 전년보다 9.8%(830원) 오른 9330원이었고, 삼겹살 100g도 4.7%(90원) 오른 2010원으로 조사됐다.

달걀(특란 30개) 값은 전년 7130원에서 이날 6000원으로, 다소(15.9%) 누그러졌다.

고등어 1마리 가격은 15.2%(-500원) 떨어진 2800원, 견멸치 100g은 17.7%(300원) 오른 2000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최근 맑은 날씨로 일조량이 증가해 공급이 원활한 채소들은 새 학기 가격지출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2주 간은 봄나들이 상춘객들의 소비가 활기를 띠면서 삼겹살 등은 소폭 강세가 전망되는 반면, 채소류는 기온상승으로 인한 산지 출하량 증가로 인한 내림세, 과실류는 계절 과일 선호로 인한 사과, 배의 내림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산물유통정보 KAMIS 홈페이지(kam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치형(오른쪽) 효성티앤씨 대표이사과 연태순 신성통상 회장이 신소재 및 친환경 소재 제품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효성 제공>

효성티앤씨 '친환경 섬유' 탑텐 간다

국내 1위 SPA '탑텐'과 협약

효성티앤씨가 국내 1위 SPA브랜드 탑텐과 손잡고 친환경 제품 공동 개발에 나섰다.

효성티앤씨는 8일 신성통상주과 친환경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을 갖춘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효성티앤씨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regenR)을 적용한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공급한다. 탑텐은 이 소재로 액티브웨어 '벨런스' 등 저렴한

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친환경 의류를 선보인다.

또 효성티앤씨는 탑텐에 친환경 패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리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에 공동 참여해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잡은 친환경 제품을 대거 출시할 계획이다.

김치형 효성티앤씨 대표이사는 "효성티앤씨는 친환경 섬유 리젠 등을 필두로 저지체 및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며 국내외 패션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확대해 고객이 손쉽게 친환경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친환경 패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달콤한 꽃다발 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베비에르' 매장에서 달콤한 간식을 주고 받는 '화이트데이'(14일)를 앞두고 프랑스 과자 머랭으로 만든 꽃다발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금호타이어, ESG 평가 'AA등급' 국내 업계 최고 수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실시...매년 점수 상승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는 올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실시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군 상위 12%내에 들며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 평가에서 2019년 BBB등급, 지난해 A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올해에는 AA등급을 받는 등 매년 평가점수가 상승하고 있다.

MSCI ESG평가(MSCI ESG Ratings)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과 관리를 위해 개발된 ESG평가 모델이다. 전세계 8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특성별 ESG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능력을 평가해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MSCI 보고서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EV용 제품 중심의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통한 환경영향 관리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품질 및 안전 측면에서는 산업군을 선도

하는 관리 사례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일택 대표는 "금호타이어는 2021년 ESG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해 ESG경영 체계 구축과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가치를 향상시키고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실시한 기업 지속가능경영 평가에서도 지난해 B+등급을 획득하며 전년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금호타이어는 기아의 전기차 EV6에 전기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클린 모빌리티'를 추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원재료의 100%를 지속가능한 재료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천연원료 물질 개발, 타이어 재활용 기술 개선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2.40 (-28.91)
↓ 코스닥	870.14 (-11.40)
↓ 금리(국고채 3년)	2.287 (-0.001)
↑ 환율(USD)	1237.00 (+9.90)

LH, 올해 광주전남에 5307호 공급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신규주택 5307호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공급, 관련사업비 7416억원을 집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원화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14일 광주선문2 741호를 청약 접수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연중 456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단지형 건설임대주택 1509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1313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1744호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유형별로 맞춤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등 지역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매입임대주택 내 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지

원서비스를 위한 아이돌봄공간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관련 사업비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사업비 5374억원, 주택건설 1503억원 및 신규 택지조성 539억원 등 총 7416억원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매입·임대사업비는 도심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3519억원을 투입하고,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과 저층 아파트 승강기 설치지원 등 노후임대아파트 시설개선을 위해 1856억원을 책정했다. 기존 주택건설 진행지구와 올해 신규로 착공하는 4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건물공사비는 1503억원이 사용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도, 미국에 '농식품 온라인몰' 오픈한다

전남도가 세계적인 비대면 식품 소비 흐름에 발맞춰 미국 현지에서 'The Kitchen of Korea, Jeollanamdo'라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을 오는 5월 그랜드 오픈하기 위해 수출이 가능한 우수 농수산물 발굴에 나섰다.

온라인 쇼핑물 입점 대상은 전남의 농어업단체, 기업 등이다. 입점 자격은 전남에서 생산한 냉장·냉동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중 미국 식품 수입통관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다.

연중 수시 모집하기 때문에 입점을 바라면 해당 시군이나 전남도 국제협력관실로 문의해 신청

하면 된다.

통관기준 등 수출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현지 운영사와 도내 수출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수출 전문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온라인 상세 페이지 제작, 현지 마케팅 등을 제공해 해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0년 세계적 온라인 쇼핑물 아마존이 자체 브랜드권을 개설했다. 케이(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말까지 40개 사 94개 제품이 입점해 35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전남 농수산식품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